

엑스트라 선교사

- 도육환 선교사 / 2003. 2. 27 -

선교사는 기꺼이 엑스트라여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 2인자로 사역할 수밖에 없고, 또 선교사역의 목표가 현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에서는 1인자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들은 기꺼이 낮아지고 숨어드는 엑스트라에로의 회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ANCC(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의 마틴골드 스미스는 “선교사들은 현지교회 지도자들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잦은 유혹 중의 하나는 사역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스리랑카에서 6여년 사역하면서 그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현지 사역자들이 아직은 미숙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진두지휘해야 할 것'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교회를 섬겨야하는 사역자들은 우리 선교사들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 때문에 선교사는 현지 지도자들을 자신의 사역 방법으로 이끌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교회나 단체를 조직할 때 선교사인 우리에게 이사 혹은 리더로 함께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새 교회에 '한국의 후원교회 이름을 넣자'고 그럴싸한 제안까지 합니다. 피선교국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약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후원교회에 무엇을 보고하고 싶어 하는지조차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유혹 때문에 선교사들은 커튼 뒤로 숨어드는 훈련을 잘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 거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인, 로날드 아마라세꺼러 목사와 베니지, 밀턴, 수레시, 싸만떠, 수랑거, 샤시 꾸마러... 이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이루어 낼 분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이 분들 대열 앞쪽에 서서 사역을 주도하려 한 적도 있지만, 결국 우리 선교사들은 조력자일 뿐이며 커튼 뒤로, 그들의 책상 밑으로 숨어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도지역에서 사역했던 폴 히버트는 리더십의 유형을 두 나무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뱅갈 보리수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 무더운 땅에서 뱅갈 보리수 한 나무가 만드는 그늘은 수 백 명이 앉아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뱅갈 보리수는 옆가지가 뻗어 가다가 새로운 뿌리를 내려 커져 가기 때문에 그 나무 주변에는 어떤 나무도 자라지 못합니다. 반면

에 바나나 나무는 거의 6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나무로 대체됩니다. 바나나 나무는 빠른 속도로 자라 6개월이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매를 따면 곧 그 나무 자체를 쳐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새로운 순이 나와 자라고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선교사의 리더십은 뱅갈 보리수보다는 바나나 나무 방식으로 지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곧 쳐내져야 하고 거기 새로운 순이 자라도록 자리를 비켜 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사의 달음질을 다 마친 노년의 사도 바울이 남긴 이 한마디가 마음에 늘 남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딤후4:1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당시 데오빌로라는 명사와 가까이 지낼 만큼 신분도 괜찮았고 헬라의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엑스트라 선교사일 줄 알았던 그 헌신이 감동적입니다.

저와 함께 스리랑카를 섬겨주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언제나 제게 이와 같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 면에서 제가 갖지 못한 능력과 귀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엑스트라로서 선교사역과 저를 섬겨 주셨습니다. 지금 그 분이 제 대신 스리랑카 사역을 책임 맡아 섬기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 주시니까요.

선교사역에 있어서 엑스트라는 넉넉하게 소유한 사람들,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가능해 집니다. 자녀들 앞에 언제나 부모는 엑스트라가 되어 줍니다. 기다려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셨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이 커튼 뒤로 우리 자신을 숨기고, 주님이 높임 받고 저들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을 주도하게 자리를 비켜 줍시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